



위즈넷, 전세계 규모의 엔지니어 대상 디자인 공모전 개최

임베디드 인터넷 솔루션으로 세계 유일 하드웨어 TCP/IP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팹리스 반도체 기업 위즈넷(대표 이윤봉 www.wiznet.co.kr)가 미국 IT 권위자 Circuit Cellar와 함께 9월 20일부터 전세계 엔지니어 대상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 총 12개 수상 작품에는 \$15,000 상당의 상금이 주어지며, 위즈넷은 수상 작품뿐 아니라 20~30여 편의 우수 공모 작품을 2008년 4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개최되는 ESC(Embedded System Conference)에 전시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의 경우 MCU가 아닌, Ethernet Controller를 소재로 한 최초의 디자인 공모전으로 개발자가 MCU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참가 진입장벽을 낮출 것으로 기대되어 역대 참가자 규모를 능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미 위즈넷 칩을 활용하여 부가가치 제품을 시도해 본 바 있는 프로슈머(Prosumer) 성격의 기존 Solution Provider들이 상품화 가치를 더욱 높여 활발하게 참여할 예정이며 향후 영업 이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국 팹리스 기업으로서 최초로 전세계 규모의 디자인 공모전 진행하는 것이라 역사적인 의미도 크다. 위즈넷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플랫폼 성격의 칩에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여 글로벌 리딩 기업으로 거듭나려고 하고 있다. 서킷셀러는 현재까지 약 10년에 걸쳐, ATME1, Microchip, Phillips, Renesas, Cypress 등 글로벌 마켓 리딩 MCU 업체와 공동 디자인 공모전을 20여 차례 진행해 온 바 있다.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 : www.circuitcellar.com

티엘아이, LED구동칩 사업 진출

티엘아이(대표 김달수 www.tli.co.kr)는 LCD 광원과 생활조명 등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LED 분야와 관련, LED구동칩(LED driver IC) 사업에 진출한다고 밝혔다. 또한 능동형(AM) OLED구동칩도 출시할 계획이라고 회사 측은 덧붙였다. LED는 LCD 광원으로 주로 채용되고 있는 냉음극형광램프(CFL)를 대체하는 한편, 형광등 등을 대신해 차세대 생활조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티엘아이는 최근 합병한 LCD구동칩 전문업체인 화인아이씨스 연구진을 주축으로 LED구동칩을 개발, 내년 초 공식 출시하고 국내외 LCD 백라이트유닛(BLU) 제조사들에 납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LED구동칩 적용범위를 생활조명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 OLED 제조사와 협력함으로써, AM OLED구동칩 사업에도 나선다는 전략이다. 김달수 사장은 "타이밍컨트롤러와 LCD구동칩에 이어 LED와 OLED구동칩 등으로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글로벌 디스플레이 반도체 전문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펜타마이크로, 중국사무소 개소

반도체 설계전문 업체인 펜타마이크로(대표 정세진 www.pentamicro.com)는 중국 선전에 사무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펜타마이크로는 중국 사무소를 열어 그간 취약했던 중국시장 매출을 극대화하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이뤄질 특수를 겨냥해 공격적 마케팅에 나설 계획이다. 펜타마이크로는 보안장비인 디지털비디오리코더(DVR)의 핵심 부품을 개발, 공급하는 회사로, 매출의 50% 이상을 수출에서 거두고 있다. 강준원 기술기획팀 차장은 "그 동안 해외 영업은 주로 현지 대리점을 통한 간접영업 방식을 써 왔으나 중국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출이 작아 사무소를 열게

됐다"며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 따른 보안시장 특수에 맞춰 차기 핵심 제품과 솔루션을 출시하고 매출을 확대하는데 이 사무소가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텔레칩스, 휴대폰 MAP 시장진출

텔레칩스(대표 서민호 www.telechips.com)는 멀티미디어프로세서(MAP)인 'TCC8200'을 국내 휴대전화 제조사에 공급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TCC8200은 휴대전화에서 MP3와 카메라, 캠코더, 비디오 등 다양한 미디어 기능을 지원하는 MAP로, 지난달부터 삼성전자 파운드리(위탁제조)에서 0.13미크론(μm) 공정으로 양산되고 있다. 현재까지 1개 휴대전화 모델에 채택된 TCC8200은 올 하반기 중 4~5개 모델로 공급이 확대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TCC8200에 이어 하반기 중 65나노공정을 적용해 가격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킨 TCC8300 역시 출시할 것"이라며 "MP3 등 일부 미디어 기능을 지원했던 DMP에 이어 고부가가치 MAP 부문의 강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MAP와 베이스밴드칩 등 휴대전화 반도체에서 지난 상반기 매출 가운데 17%를 달성한데 이어, 올해 전체 실적 가운데 20% 이상을 이 부문에서 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픽셀플러스, 생체인식 기기용 칩셋 양산

픽셀플러스(대표 이서규 www.pixelplus.com)는 생체인식 기기용 칩셋 'PM1002'를 오는 4분기부터 양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M1002는 CIS(CMOS 이미지 센서) 기술과 생체인식 기술을 복합한 시스템온칩(SoC)으로 홍채인식이나 지문인식기에 모두 활용 가능하다. PM1002는 32비트 RISC 식 중앙연산처리장치(MCU)와 메모리를 내장하고 있으며, 알고리즘을 처리하는 전용 하드웨어(HW) 블록을 통합해 영상인식 성능을 크게 향상시켰다. 이 칩셋은 크기가 휴대용 제품에 적합하도록 소형으로 설계됐으며 소비전력도 최소화했다. 생체인식기기, 웹 카메라, 디지털비디오리코더(DVR), 광학문자인식기(OCR) 등에 사용하기 적합하다. 서용덕 전략기획팀 수석연구원은 "휴대폰·감시카메라·의료기기·자동차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CIS를 개발 중"이라며 "4분기부터 양산할 칩셋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앤씨테크놀로지, 지상파 DMB용 원칩 출시

아이앤씨테크놀로지(대표 박창일 www.inctech.co.kr)는 지상파 DMB용 RF칩과 베이스밴드칩을 하나로 통합한 원칩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T3300은 두 개의 칩을 하나의 실리콘 기판 위에 통합해 5x5mm의 초소형 원칩으로 구현해 기존 제품 대비 70% 이상 면적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이 칩은 국내 주파수 대역과 유럽·중국 등 해외 주파수 대역의 신호를 모두 감지할 수 있어 휴대폰에 장착하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DMB와 DAB 수신 가능하다. 또 퀄컴의 최신 MSM 모델과 호환되기 때문에 별도의 비디오 디코더 칩이 없어도 지상파 DMB를 시청할 수 있다. 이 칩의 소비전력은 기존 제품 대비 40% 이상 줄어든 6mW 이하에 불과하다. 조계욱 아이앤씨테크놀로지 연구소장은 "아이앤씨는 초소형 원칩 공급으로 국내 팹리스 업체의 기술력이 세계적인 위치에 있음을 증명했다"며 "이번 초소형 원칩은 국내 기술인 지상파 DMB를 전 세계에 보급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아이앤씨



는 올해 안에 T-DMB·DVB-H/T·ISDB-T 등 다양한 표준을 지원하는 휴대 이동방송용 칩도 출시할 예정이다.

에스에이엠티, 2.5인치 외장형 포터블 HDD 출시

에스에이엠티(대표 성재생 www.isamt.com)가 2.5인치 외장형 포터블 HDD인 '아이칼라'를 출시하며 자체 브랜드 사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에스에이엠티는 국내외 반도체·LCD 제품을 국내 및 해외시장에 판매하는 글로벌 유통업체로, 자체 브랜드로 제품을 출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에스에이엠티는 기존의 정형화된 외장형 HDD 디자인에서 탈피, 멋스러움을 중시하는 여성 및 젊은 소비자를 타겟으로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의 저가형 수입 HDD와의 차별화를 위해, 디자인과 제조·조립 모두에 순수 국내 기술을 적용했다. 제품은 120GB와 160GB 두 가지 용량의 2.5인치 HDD로, HDD는 삼성전자로부터 공급 받는다. 인터페이스는 USB포트와 e-SATA 포트를 모두 채택, 디자인 뿐 아니라 성능에서도 일반인과 전문가들을 모두 겨냥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160GB 용량의 제품은 MP3 2400시간 이상, 디지털 사진 7만9500장, 디지털 영상 11시간을 저장할 수 있다. 에스에이엠티는 이 제품의 판매 목표를 올 한해 3만대로 책정했으며, 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해 아이칼라 전용 홈페이지(www.i-calla.com)도 마련했다.

MDS테크놀로지, 토털 임베디드 솔루션업체 변신 성공

임베디드 소프트웨어(SW) 전문업체 MDS테크놀로지(대표 김현철 www.mdstec.com)가 토털솔루션업체 변신에 성공했다. MDS테크놀로지는 모바일과 자동차 분야에 집중했던 것에 탈피해 임베디드 시스템 데이터관리 솔루션 등 다양한 신규 사업에 진출해 한때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나 최근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토털솔루션업체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MDS테크놀로지는 2분기에 매출 91억 5300만원에 영업이익 17억 6200만원을 기록하며 1분기 적자를 단숨에 만회했다. 김현철 MDS테크놀로지 사장은 "임베디드 통합 개발 솔루션에서 SW 업그레이드 수요가 증가하고 올 초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펼쳤던 계측장비 솔루션 사업의 호조로 전분기 대비 큰 폭의 흑자전환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MDS테크놀로지는 올해 사업다각화와 신규 수익원 발굴을 위해 임베디드 시스템용 데이터관리솔루션과 실시간 가상화 솔루션, SDR(Software Defined Radio) 등 사업에 뛰어들며 토털 임베디드 솔루션업체로 위용을 갖췄다. 김 사장은 "하반기에 기존 사업과 고객을 바탕으로 시너지 효과와 수익성을 낼 수 있는 신규 사업을 활발히 전개해 세계적인 임베디드 SW 업체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엠텍비전, 유럽 겨냥한 휴대폰에 MMP·CSP 2종 공급

엠텍비전(대표 이성민 www.mtekvision.com)이 최근 국내 휴대전화 제조사가 유럽시장을 겨냥해 내놓은 500만화소 멀티미디어폰 모델에 반도체 부품 2종을 공급했다. 회사 측은 이번 500만 화소 멀티미디어폰 모델에 MP3, 동영상 등 다양한 미디어 기능을 지원하는 멀티미디어프로세서(MMP)와 자동초점·광학줌 등을 지원하는 카메라시그널프로세서(CSP) 등 2종을 납품했다고 밝혔다. MMP는 콘텐츠 불법복제를 차단하는 저작권관리 기능을 지원하고 휴대전화에서 MP3플레이어 수준의 정렬과 검색 기능을 구현할 수 있고, 낸드플래

시·SD카드 등 저장장치와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한다. CSP는 차세대 고속시리얼 인터페이스를 내장해 대량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으며, 불량화소와 렌즈왜곡현상, 화소간 불균일성 등을 개선한 부품이다. 엠텍비전은 올해 들어 기존 주력인 카메라프로세서(CCP)에 이어, 고부가가치 MMP와 CSP 등 차기 제품군 공급이 본격화되면서 작년 대비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회사 측은 "작년 매출 가운데 MMP와 CSP 비중이 각각 15%와 20%였는데 반해, 올해 이들 제품군에서 매출의 50% 이상을 달성할 것"이라며 "고성능 멀티미디어폰에 MMP와 CSP를 동시에 공급하는 사례가 늘면서 양 부문간 시너지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넥스트칩, 압축률 강화 오디오 코덱 출시

영상보안 반도체 전문업체인 넥스트칩(대표 김경수 www.nextchip.com)은 압축률을 4배 강화한 디지털비디오녹화기(DVR)용 보이스 코덱인 'NAP9004'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NAP9004는 4채널 입력신호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DVR용 ADPCM 코덱 제품으로는 세계 최최다. 넥스트칩이 오디오 코덱 제품을 선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량 외산에 의존하던 DVR용 보이스 코덱 시장에 진출하는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 기존 DVR에 사용되던 오디오 제품은 1채널·4채널 입력신호를 기반으로 해 PCM 방식으로 음성데이터를 저장했으나, 넥스트칩의 NAP9004는 4채널 입력신호에 PCM과 ADPCM 방식을 모두 채택해 음성 데이터 압축률을 기존 제품 대비 2~4배 향상시켰다. NAP9004는 채널별 증폭 회로를 내장해 외부 회로를 없앴고 각 채널별 증폭률을 소프트웨어로 쉽게 조정할 수 있다. 또 현재 출시된 모든 DVR용 코덱과 호환이 가능해 어떤 DVR에도 적용될 수 있다. 최중현 넥스트칩 경영지원실 팀장은 "NAP9004는 개발이 완료돼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홍보를 진행 중"이라며 "내년부터 회사 매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윈텍, 대형 LCD TV 동영상 화질 개선 압축 오버드라이브 기술 개발

다윈텍(대표 김광식 www.dawintech.com)은 대형 LCD TV의 동영상 화질을 개선할 수 있는 6분의 1(1/6) 압축 오버드라이브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다윈텍은 고성능 1/6 압축 알고리즘이 적용된 타이밍 컨트롤러를 내년 2분기에 양산할 예정이며, 이 기술을 120Hz 오버드라이브 기술 등에 응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개발할 계획이다. 1/6 압축 오버드라이브 기술은 기존의 1/3 영상 압축 알고리즘 기술보다 두 배의 압축률을 갖췄다. 따라서 풀 HD 영상의 경우 기존 외장 메모리를 64Mb에서 16Mb SDRAM으로 대체할 수 있어 저장 메모리를 줄일 수 있고 기존의 알고리즘 기술보다 화질이 우수한 것이 장점이다. 김광식 사장은 "1/6 압축 오버드라이브 기술은 앞으로 대화면과 실시간 고속 디지털 영상 압축 분야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반 기술"이라며 "LCD 패널 업계는 치열한 가격 경쟁 탓에 원가 절감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이 기술에 큰 관심을 가질 것"으로 전망했다. Ⓚ

[자료제공]

- [1] 전자신문 www.etnews.co.kr
- [2] 디지털타임스 www.dt.co.kr